

서 평 지

서평 제목	하강의 사랑과 상승적 영혼	참가번호	2023-44
도 서 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무거움과 가벼움, 영혼과 육체, 약함과 강함. 밀란 쿤데라가 작품 전반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재들이다. 저자는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등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철학적 세계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주장한 무거움과 가벼움을 선악으로 대치한 걸 작품에서 고유의 철학으로 풀어내며 독자의 흥미를 이끈다. 특히, 내가 주목한 것은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에서 드러난 무거움이었다. 기독교적 결혼관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일부다처주의 연애관을 지닌 토마시에게 필연적인 수준으로 찾아온 우연의 존재, 신분 상승을 원한 테레자, 어머니의 사랑을 희구했으나 자기 얼굴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는 걸 거부한 테레자, 거울을 보며 자아를 찾던 테레자를 작품 속에서 알아갈수록 그들의 사랑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 속에서 저자는 니체를 자주 언급한다. 그에 대한 증거로 대비되는 성질을 언급하는 것과 ‘초인’에 대한 언급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초인’이란 무엇인가? 니체의 주장으로는 인간을 넘어선 무언가이자, 깨달음을 알아낸 자이다. 즉, 속세에 대한 욕망을 버릴 수 있으며 언제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존재이다.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에서 바라본다면, 가벼움을 지니고 있어 선한 존재라 볼 수 있다. 쿤데라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무거움과 가벼움의 중화를 이룬 자라 볼 수 있다.

그는 작품의 1부 1장에서 “따라서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고 말하며 무거움과 가벼움의 사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사이를 잘 나타낸 인물은 누구인가? 나는 테레자라고 생각했다. 그 누구보다 무겁게 살아가고자 원했던 테레자를 볼수록, 저자가 말하고자 한 인간 군상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저자가 “테레자는 인간의 근본적 체험, 즉 영혼과 육체 간의 화해 불가능한 이원성이 급작스럽게 드러난 상황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나는 저자가 사랑을 형상화한 인간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 생각했다.

작품 속 테레자의 어머니는 인간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며,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인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을 표출할 수 없도록 테레자를 압박하고 자아를 찾는 과정을 방해한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사랑을 몰랐던 테레자는 필연과 같은 우연의 상대 토마시를 만나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 혼란을 찾아낸다.

갈등과 혼란 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가? 단순한 외면일 뿐이다. 사비나가 프란츠의 언어를 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외면, 즉 배신하면서 헤어지고 나서야 그의 사랑을 알아차린 걸 생각해 보면 독자들은 저자가 말하고자 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평 제목	하강의 사랑과 상승적 영혼	참가번호	2023-44
<p>테레자는 강렬히 자아를 찾고자 했다. 살아있고자 욕망하여 그 누구보다 무거운 트렁크를 지니고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 토마시에게 찾아간다. 重의 사랑이다. 연인 간의 사랑에 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가벼웠던 테레자는 한 남자를 보러 영혼에서 내려와 육체로 사랑한다.</p> <p>자유로운 독신을 추구하던 토마시는 허약한 테레자를 보고 그를 강에 떠내려온 아이라 이입하며 이 운명은 동정의 사랑이라 깨닫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동정의 사랑,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의 사랑은 하강의 사랑이다.</p> <p>신분 상승을 노린 테레자와 외과 의사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토마시, 이 둘은 전개 후 반부로 갈수록 도시가 아닌 자연이 있는 농촌으로, 즉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초탈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p> <p>둘의 관계가 가장 격정적이었을 때, 테레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가지려고 했다. 삶에 대한 큰 애착과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산 아래 사람들처럼 속세를 중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테레자는 인간을 향한 환멸과 자기 환멸을 느끼며 자신이 왜 추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 고찰한다.</p> <p>토마시의 바람에 지쳐 자신이 일한 바에서 만난 경찰일지도 모르는 기술자와 밤을 보낸 것을 두고 자신의 추함을 인지하면서도 다시 한번 자기 신체에 대한 파악을 이뤄내는 걸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건 타인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 <p>또한, 7부 카레닌의 눈물에서는 자기가 지닌 사랑 중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카레닌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초월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p> <p>즉, 이러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테레자의 영혼이 깨달음의 단계와 자신의 배경인 이원성을 느끼며 성장한 것으로 생각했다. 초인의 단계에 오르려 하는 상승적 영혼이라 볼 수 있다.</p> <p>나는 이 하강의 사랑과 상승적 영혼이 합쳐지게 되면서, 테레자가 토마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객관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봤을 때, 테레자는 스스로 초월하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약함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테레자는 토마시가 나이가 들어 약해졌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토마시는 유리창 청소부일 적부터 약해져 있었다.</p> <p>프라하의 유리 청소부일 때 연인이었던 키 큰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닌 타인과의 합을 맞추는 이로 변모된 걸 떠올리면, 그는 그 당시부터 약해진 것이다. 그리고 테레자가 이 사실을 카레닌을 보내는 과정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생각했다.</p> <p>저자는 무겁고 위계 중심의 사랑을 통해 약한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약함과 강함을 파악하고 순식간에 변해가는 세상을 알아가면서, 영혼이 역설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이것보다 사랑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은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도 영혼을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마법 같은 진실이다.</p> <p>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경험과 적절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싶은 정도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대하고 깊이 있다. 나는 그 수많은 교훈 중에서 사랑을 통해 겪는 혼란으로 성장하고 초월하는 테레자에 주목했다. 이것이 내가 이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이다.</p>			